

# “五族協和”와 “民族이데올로기” 사이에서

—滿州「建國大學」과 崔南善의「滿蒙論」을 中心으로—

全 成 坤    경주대학교 일본어학과 강사

## 1. 서 론)

본 논고는 1938년에 창설된 만주「건국대학」(이하, 만주건국대학)의 창립 이데올로기와 그 동(同)시대에 만주건국대학에서 조선인 중 유일하게 교수로 역임한 최남선의 사상 고찰을 중심축으로 설정하여 출발한다. 특히 필자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적 저항성, 전향론, 친일이라는 편력을 중층(重層)시키는 최남선 개별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식민지화”라는 현실 상황 속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조선총독부의 <동화정책>과 1930년대의 보편주의를 새로 장식하면서 등장한 <만주건국대학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시대적 권력 <언설>로 상정하였다. 이와 연결하여 그 이데올로기의 자장(磁場)속에서「조선」이라는 주체의 재생산에 관여하는 사상공간의 변용을 가시화(可視化)하려는 것이다.

즉, 식민지 지배하라는 특수한 현실적 상황 그 현재적 상황을 검증하고, 그 작업을 통해 조선인인 최남선이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 안에서 찾으려했던 조선신화가, 어떻게 지배자와의 상호관계성속에서 “내부 이데올로기”로 그 의미를 획득해 가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인 입장의 민족이데올로기 재발견의 변형이 어떠한 양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가를 부각시키려 한다.

## 2. 만주건국대학의 창설

이 건국대학은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에 의해 만주국 신설대학 설립 필요성의 제안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다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 육군참모가 찬동한 것으로 잉태된 대학이다. 대학창설과 대학구상을 구체화하며 건국대학 창설에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이 가다쿠라 다다시(片倉衷), 쓰지 마사노부(辻正信)등 관동군 참모들이었다. 그 이외에 호시노 나오키(星野直樹), 협화회의 간기치 쇼이치(神吉正一),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도 참여했다.

이시하라가 처음에는 “아시아대학”창립에 관한 구상을 제안했는데, 그 안은 <민족협화>를 기본이념으로 이상국가인 만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도 원리”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다. 그를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만주국에서 실천하고, 만주국 건국이념을 완성하기 위한 아시아대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쓰지는 1936년 말부터 이 안을 실질적으로 작성하고 동경대교수인 히라

이즈미 노보루(平泉澄)에게 대학 창설을 의뢰했다.<sup>1)</sup> 히라이즈미는 내지(內地)의 설립위원으로 가케이 카츠히코(筧克彦), 사쿠다 소이치(作田莊一), 니시베 이치로(西普一朗)등 세명의 박사를 추천하였다. 총 네 명이 설립위원으로 위촉받아 창설 활동의 중심이 되어 그 구상을 짜내어 갔다.<sup>2)</sup> 그러나 1937년 3월 1일, 이다가키 관동군참모가 사임하고 도조 히데키가 관동군 참모장으로 만주에 부임하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조, 가다쿠라, 쓰지, 그리고 네 명의 교수들에 의한 건국대학 창설 준비위원회가 진행된다.<sup>3)</sup> 만주 현지에서는 관동군참모장 도조를 위원장으로 하고 호시노 나오키, 미나가와 토요하루(皆川豊治)등이 위원으로 위촉받아 내지와 연대하면서 개학 진행되었다.

1937년 4월 17일에 국무원 회의에 의해 개학이 정식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때 대학명칭은「아시아 대학」에서 「건국대학」으로 변경·확정되었다. 1937년 7월 15일부터 3일간 신경(현:장춘)에서 국무총리 장경혜(張景惠)를 비롯해 동경설립위원과 현지위원들이 모여 최종 설립회의를 가졌고, 건국대학설립요강(建國大學設立要綱)과 건국대학령안(建國大學令案)을 심의하였다.<sup>4)</sup> 이시하라는 9월말, 다시 만주 육군참모부장(副長)으로 부임하게(左遷)되자, “건국대학 창설 준비 위원회” 신경사무소를 찾아가 건국대학이 변질되어가는 것을 보고 학생 모집 반대와 개학 중지를 요청했지만<sup>5)</sup>,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아시아대학에서 건국대학으로 변경되고, 1937년 8월 5일, 칙령 제234호인 건국대학령(建國大學令)이 공포되어 1938년 5월 2일, 만주국 황제가 임석(臨席)하고, 부총장인 사쿠다 소이치(作田莊一), 그리고 건국대학을 낳은 관동군의 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기(溥儀)황제의 칙서<sup>6)</sup> 반포를 시작으로 만주건국대학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건국대학은 식민지 중에서 유일하게 민정부(民政部)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직속의 문화대학으로 이례적인 것이었다. 건국대학이 가진 목적은 기존의 대학과는 다른 독자적인 측면으로써 그것이 만주국 “건국정신을 체현(建國精神の體現)” 하고 신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만주건국대학은 건국이념을 실천하는 장(場)의 하나로서 <오족협화>를 실현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목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대학이었다.<sup>7)</sup> 건국대학 창설당시에 발표한 건국대학령을 보면, 구체적으로「건국정신(建國精神)의 정수(神髓)를 체득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몸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도의세계(道義世界)건설의 선각적 지도자인 인재를 양성한다.<sup>8)</sup>」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었으며,

1) 志々田文明 「建國大學の教育と石原莞爾」 『人間科學研究』 第6巻第1号,早稲田大學人間科學部, 1993年, pp.113-115.

2) 滿州國史編纂刊行會 『滿州國史』 總論, 第4編:繁榮期, 第14章:新學制の制定, 建國大學の創立の案, 1970年, pp.592-593.

3) 湯治万藏編 『建國大學年表』 1981年, p.8.

4) 山根幸夫 『建國大學の研究』 汲古書院, 2003年, pp.81-82.

5) 宮澤惠理子 『建國大學と民族協和』 風間書房, 1997年, p.36.

6) 建國大學 「建國大學要覽」 1940年, <勅書>. 方今世界ノ形勢天運循環生命維新二當り數會心變ニ會ス我カ國順天安民ノ業盟邦ト徳ヲ一ニ心ヲ一ニ民族ヲ協和シ庶政ヲ平章スル此ニ六載奮命彌篤ク邦運彌興ル今茲ニ政府建國大學ヲ創立シ國ノ爲ニ將ニ楨幹棟梁ノ材ヲ造就スルアラムト時ナル故維レ時朕深ク之ヲ懼ル惟フニ本大學ハ我カ國最高ノ學府タリ政教ノ深淵文化ノ精粹經天緯地ノ學修齊治平ノ道此ニ教ヘ此ニ學ヒテ始メテ以テ天下ニ施シテ憾ナカルヘシ使命ノ重キ一息ノ放過ヲ容サス爾教職ノ諸員及ヒ學生等克ク我カ建國ノ精神ト政教ノ本義トヲ體シ其ノ原理ヲ宣明シテ徹底セサル所ナク其ノ功化ヲ發揚シテ覃及セサル所ナク誠意正心ノ學ヲ本トシテ東西淹通ノ識ヲ廣クシ禮用ヲ明辨シ知行ヲ合一シ我カ國學ノ爲ニ新ニ一生面ヲ開キ實濟ノ材ヲ造就シ出テテ負荷ノ任ニ膺リ先進ノ休烈ヲ光裕シテ自息意マス協和會ノ事功ヲ勤襄シ國維ヲ振興セハ其ノ集大成スル所其ノ效固ニ至宏ナリ特ニ明勅ヲ降シテ用テ朕カ興學育才ノ至意ヲ示ス此ヲ欽メ.

7) 岡崎精朗 「資料」 「民族の苦難—創設期の建國大學をめぐる—一解説」 『東洋文化學科年報』 第4号, 追手門學院大學文學部東洋文化學科, 1989年, pp.64-65. 그리고 학부위에 연구원(研究院)을 설치하고 교원들의 연구 활동을 독려했다.

그 의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건국대학 창설 기반인 「건국정신」에 관해서 미야자와 에리코(宮澤惠理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만주평론사 사장인 고야마 사다치(小山貞知)는 건국정신을 첫째, 의회정치(議會政治), 전제정치(專制政治), 둘째로 왕도정치(王道政治), 셋째로 황도정치(皇道政治)로 정리했다. 최종적으로는 황도주의(皇道主義)에 수렴되어질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협화회의 건국이데올로기에 의거한다면, 「민족협화(民族協和)」라는 것은 민족이 서로 평등한 민장에서 공존공영(共存共榮)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계 민족이 일본 문화를 중핵으로 하여 융합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 건국정신 이데올로기의 전파는 황도주의가 되었고, 일본의 지배와 일본문화를 타민족에게 강요하는 것이었다.<sup>9)</sup>

1937년 이후 만주국 건설계획은 미야자와가 지적하듯 황도주의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으며, 이 경향으로 점차 일색 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논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 중요한 논점이라는 것은 황도주의가 가지는 논리이다. 이 황도주의는 이시하라가 중심이 되어 전개한 운동, 즉 「동아연맹운동(東亞連盟運動)」에서도 보인다. 이 동아연맹운동 사상이 만주국 협화회에 채용되는 것은 1933(昭和8)년 3월이며, 정식적인 성명을 내걸고 있었다. 협화회와 동아연맹의 밀접한 관련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 협화회와 동아연맹은 최종단계가 황도주의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시하라와 고야마의 만주건국정신의 최종단계 이론이 팔굉일우(八紘一宇)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렇지만 한 가지 고야마의 「건국정신」과 이시하라의 「동아연맹」이 강조하는 건국정신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야마의 경우 황도연방(皇道連邦)의 중심을 일본에 두고 있지만, 이시하라의 경우는 동아연맹의 지도 원리에 두고 있었다. 즉 이시하라의 동아연맹의 지도원리라고 하는 것은 「국방의 공동성, 경제의 일체화, 정치의 독립과 사상의 일원화」이며, 각 민족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각각의 민족국가가 정권을 확립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논리였다. “각각의 민족국가가 정치적 독립을 확립한다” 라는 의미에서 크게 차이점이 보인다는 것이다.<sup>10)</sup> 이 점이 이시하라와 고야마의 이념의 상이점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민족협화」를 내건 건국대학의 이념이 식민지배이데올로기의 연장선상에서 구상되어진 논리였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식민지 국가 창출 과정에서 보인 지배 이데올로기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각축 속에서 조선인인 최남선이 어떻게 건국대학 교수로 초빙되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湯治万藏編, 前掲書, pp.51-52.

9) 宮澤惠理子, 前掲書, p.18. 小山貞知「建國大學と協和會」『建國評論』第16卷第16号, 1939年, pp.28-31. 小山貞知「滿州協和會の發達」中央公論社, 1941年.

10) 여기서 이시하라와 고야마를 예를 들어 그 차이점을 살펴본 이유는, 협화회가 만주국 관동군의 정책운영에 중요한 기관 중 하나였으며, 협화회에서 간행하는 『만주평론』은 고야마가 운영하고 있었던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국대학을 창설하는데 있어서 초기 발안자가 이시하라였다는 점에서 이 둘의 영향력이 컸다는 점에서 비교한 것이다. 宮澤惠理子, 前掲書, pp.31-34. 이시하라 간의 동아연맹에 관한 논고: 五百旗頭貞「東亞連盟論の基本的性格」『アジア研究』21卷1号, 1975年, pp.22-58. 桂川光正「東亞連盟論の成立と展開」『史林』第63卷第5号, 史學研究會, 1980年. 松澤哲成「東亞聯盟運動論 政治運動から社會運動へ」『史海』第28集, 東京女子大學讀史會, 1974年. 宮崎正義「東亞聯盟論」改造社, 1938年. 任城模「1930年代日本の滿州支配政策研究-滿州協和會를 중심으로」, 延世大學院史學科修士論文, 1990年.

### 3. 최남선 초빙을 둘러싸고

개혁 준비과정에서 최남선을 교수로 초빙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이시하라가 아시아대학을 구상했던 초기에 아시아인을 포함해 소련의 트로츠키, 인도의 간디, 아메리카의 펄벅을 초빙하려고 리스트업했다<sup>11)</sup>고 한다. 그러나 1937년 7월,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화북침략(華北侵略)에 의해 국제관계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고, 다른 나라의 교수를 초빙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일본인을 주류로 초빙하게 된다.<sup>12)</sup>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에서 불러오는 교수진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남선은 3·1 운동 사건에 관계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는 이시하라에게 최남선 초빙에 대해 항의를 했다고 한다. 그때 박석운(朴錫胤)이 중간에서 조정하였던 것이다.<sup>13)</sup> 최남선의 건국대학 초빙에 중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은 박석운으로, 그는 최남선의 여동생인 최설경(崔雪卿)의 남편이었다.<sup>14)</sup> 박석운이 당시 고문으로 관계하고 있었던 협화회 산하의 「신경협화소년단」은 이시하라가 관련하고 있었던 단체였다. 박석운은 1937년 7월부터 만주국 국무원 직속의 외무국 조사소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건국대학 창설과정에서 박석운이 최남선 초빙에 중추적 역할을 맡았으며, 최남선은 총독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국대에 부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오카자키 세로(岡崎精朗)의 「《자료》 민족의 고뇌- 창설기 건국대학을 둘러싸고」를 보면 “교수들이 초빙되어 오는 가운데 이채(異彩)적인 한 사람이 조선에서 온 최남선 교수”라고 적고 있다. “지금은 조선의 참의(중추원참의)를 하면서 조용해졌지만, 이전에는 총독부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독립운동의 거두였었다. 3·1운동은 그의 지도하에 일어난 일본에 대한 반대운동이었다. 이 특이한 사람을 대학에 초빙한 것도 쓰지(辻)였다. 쓰지가 조선으로 최(남선) 참의를 찾아가, 그 의도를 전했다”<sup>15)</sup>고 했다는 것이다.

최남선은 순수한 학자가 아니고 민족해방운동에 가담한 정치적 색채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건국대학의 오족협화 이데올로기 논리를 정당화하려 했던 관동군의 의도에 최남선이 적격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건국대학이 대륙의 민족들에게 어떤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것이기도 했다.<sup>16)</sup> 이시하라 추천에 의해 교수가 된 나카야마 유(中山優)는「농담 비슷하게 우리들을 정책교수로 불렀다」<sup>17)</sup>라는 부분에서도 그 의도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나카야마는 자신들을 정책교수로 불렀으며, 그러했기 때문에 조선인과 중국인과의 마음을 터놓고 지냈다고 회고했다. 건국대학의 정책교수라는 의미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그 논리를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sup>18)</sup>

11) 齊藤利彦 「『滿洲國』建國大學の創設と展開-『總力戰』下における高等教育の『革新』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調査研究報告-總力戰下における『滿洲國』の教育、科學・技術政策の研究』 第30号, 1990年, pp.116-117.

12) 梶元夫 「世にも不思議な『滿洲建國大學』」 『諸君』 1983年, p.147.

13) 湯治万藏, 前掲書, p.63.

14) 장세운 「朴錫胤」 『親日派九人』 ②, 돌베개, 1994年, pp.51-54. 박석운은 1932년 7월 25일에 설립된 「만주제국 협화회」 산하의 「신경협화 소년단(新京協和少年團)」 고문으로 근무했다. 그리고 1934년 12월에는 만주국의외부에서 근무하고, 1937년 7월에는 만주국 국무원 직속의 조사소장으로 승진. 일본 식민지하에서 일본의 정치가의 신임을 얻어 외교관으로 활동한 조선인은 이 박석운과 장철수 단 두 사람이다.

15) 岡崎精朗, 前掲書, p.67.

16) 湯治万藏, 前掲書, pp.64-71.

17) 湯治万藏, 前掲書, p.69.

18) 최준 「滿鮮日報解題」 韓國學文獻研究所 『滿鮮日報』 (全5冊) 亞細亞文化社, 1988年, p.2. 최남선은 건국대학에 초빙되면서, 1938년

결과적으로 건국대학에 초빙된 오족협화 이데올로기의 편승자들은 열렬한 신도주의자(神道主義者)이기도 했고, 황국사관(皇國史觀)의 고취자인 히라이즈미 등이 추천한 교원으로는 국가주의자, 군국주의자 등도 포함되어 있었고, 한편으로는 전혀 정치와 관계없는 「순수」한 학문연구 교원도 포함되었던 것이다.<sup>19)</sup>

이렇게 보면, 건국대학 창설 초기에는 적어도 오족협화를 실천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정 중심 대학(연구원 포함)이기는 했지만, 여하튼 민족주의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민족주의자(조선인·일본인·중국인등 각각의 의미)의 정치대학이었고, 「이민족(異民族)을 하나의 용광로에 넣고 민족협화 세기를 실험하는 장소」<sup>20)</sup>였던 것이다. 이러한 표현에서 조선과 중국에서 초빙된 교수들이 민족주의자이고, 일본인 중에도 다양한 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만주국을 「국제적으로 어필한다는」 정책 수행을 의도하면서 인재를 끌어들이었던 것이다. 또한 교수들도 그 시대적 부산물로서 정책적 존재로 이용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권력지향을 꿈꾸고 군부와 손을 잡고 의도적으로 건국대학에 참여한 교원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은 말 할 것도 없을 것이다.<sup>21)</sup>

오족협화의 논리 속에서 최남선도 건국대학 교수로 부임했다는 것은 민족협화의 논리를 선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식민지 지배 시스템 속에서 식민지제국의 인재를 양성하는 장소에 있었다는 것은 체제 편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건국대학에서 활동한 최남선의 학술활동이 무엇이었는지 그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4. 만주건국대학 연구원(研究院)의 역할

최남선은 연구원에도 소속해 있었는데, 먼저 그의 연구원 활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원 설립에 관한 목적을 『건국대학 연구원 요보(建國大學研究院要報)』에서 찾아보면, “건국원리를 개명하고 국가에 필요한 학문을 연구하여 그를 바탕으로 국민사상 근본정신 확립, 국가정책의 근본원리 수립에 기여하는 것<sup>22)</sup>이라고 설명한다. 건국원리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에 필요한 학문을 연구 한다는 것이 기본 틀이며, 그 연장선에서 국민사상의 근본정신을 확립하여 “국가 정책에 기여한다”는 의도였다.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해 “동방문화 융성을 꾀하는 것”에 사명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원의 원장을 겸임한 사쿠다(作田)부총장의 사상은 특히 이 연구원의 색채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었으며, 『연구원월보』를 일 년에 한 번씩 발행하여 그 사상을 선전하고 있었다. 그 사상의 주된 연구는 ‘건국정신’ 혹은 ‘국가정신 진흥’과 보급에 집중적으로 쏟는 것에 있었으며, 동시에 그 정신을 주체로 하는 만주국 연구, 즉 ‘만주국학’을 수립하는 것이야 말로 연구원의 중책이라고 보았다.<sup>23)</sup>

4월에 『만선일보』의 기고문으로 신경에 부임하고 있었다.

19) 山根幸夫, 前掲書, pp.120-127.

20) 榎元夫, 前掲書, p.141.

21) 湯治万藏, 前掲書, p.69.

22) 建國大學研究院 「建國大學研究院要報」第1号, 1939年, p.3. 「当研究院ハ建國大學研究院令第一條ニ於テ 『建國原理ヲ闡明シ國家ニ須要ナル學問ノ蘊奧ヲ究メ以テ國民思想の根本精神確立國家政策』ノ根本原理ノ樹立ニ寄与シ併セテ東方文化ノ興隆ヲ図ル所トス」タルノ使命ヲ与ヘラレ」

23) 作田莊一 「刊行辭—現代の學問に就いて」 『研究院月報』 第1輯, 1941年, p.5.

미야자와는 사쿠다의 강연기록인 「현대의 학문과 만주국학의 연구법(現代の學問と滿州國學の研究法)」을 정리하면서 「건국정신」의 명실화와 「건국국학(建國國學)」 연구의 병행 의도를 첫째, 왕도정치 국가이어야 한다는 것. 둘째, 민족협화 국가라는 것. 즉 일본과 일덕일심(一德一心), 일체불가분(一體不可分)의 관계이어야 한다는 것. 셋째, 도의세계(道義世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세 가지를 기본 틀로 한 국가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논리였는데, 특히 그 실천적인 사항으로 거론되는 것이 만주국과 일본은 하나(一體: 아마테라스 오카미를 받드는 나라)라는 논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만주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천명신의 인도(天命神慮の導き)」에 의해 태어난 국가라는 입장이다. 일본의 신도는 일본국내의 신의(神意)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만주국도 천(天)의 관념에 의해 신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주의 건국정신(建國精神)은 고래 신도의 길(惟神之道)<sup>24)</sup>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사쿠다는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구원은 사쿠다가 생각하는 <건국정신>을 강조·반영하고 있었고, 연구원의 중요한 관심도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었으며, 그를 위한 「만주국학(滿州國學)」의 집대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연구원도 식민지 경영을 위한 연구가 주축이었으며, 식민지발전을 위한 이데올로기 창출을 위한 장치를 개발하는 기관이었던 것이다.

최남선은 「민족연구반(民族研究班)」에 소속해 있었다. 이 민족연구반의 연구 주제는 「만주에 있는 민족 연구(滿州ニ於ケル民族ノ研究)」를 주된 테마로 삼고 있었다. 그것은 「만주국민(滿州國民)」의 민족 문제에 관련한 것이었는데, 최남선은 「조선민족 연구」를 담당하고 있었다.<sup>25)</sup> 또한 최남선은 「역사연구반(歷史研究班)」<sup>26)</sup>에도 소속되어 국학, 황도(皇道) 정신의 고무(鼓舞)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이 연구원에서도 활동했다. 이 연구원에서 발표한 최남선의 논고가 「동방고문화의 신성관념에 대하여(東方古民族ノ神聖觀念ニツイテ)」<sup>27)</sup>로 건국대학에 부임하자마자 집필하여 실은 논고였다.<sup>28)</sup>

그 「동방고문화의 신성관념에 대하여」를 보면, 먼저 동방이라는 개념을 도입부분에 제시한다. 아시아 문화의 근원과 전통에 관한 재(再)분류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아시아는 그 문화나 전통상으로 보아 우선 인도문화, 그리고 동쪽의 중국문화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문화의 북부에 또 다른 하나의 큰 문화권(文化圈)이 성립되어 있다고 설정했다. 이 문화권의 특징은 아세아의 여러 주변 민족과 관계를 가지면서 침윤되고 생성되어 온 것이며, 그것을 동방문화권이라고 설정한다.<sup>29)</sup> 동방문화권에 속한 민족들의 정신생활의 특성이 「산(山)」의 명칭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산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고, 천(天)과 관련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신앙의 최고 표상으로 다루어졌다고 설명한다.

이 신앙의 표상이라고 본 산악(山岳)의 옛 이름(古名)을 연구하는 것이 그 신앙 실태의 핵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동방세계(東方世界)」의 지형·역사는 물론이고, 실제적 신앙 면에서

24) 宮澤惠理子, 前掲書, pp.145-147.

25) 建國大學研究院, 前掲書, pp.16-17.

26) 建國大學研究院, 前掲書, pp.27-28.

27) 建國大學研究院, 前掲書, p.18. 奥村義信 「滿州娘娘考」 第一書房, 1982年, p.4.

28) 崔南善 「東方古民族의 神聖觀念에 대하여」, 「崔南善全集9」, 玄岩社, 1974년, p.259.

29) 崔南善 「東方古民族의 神聖觀念에 대하여」, 상계서, p.260.

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산(靈山)”인 만주의 「장백산(長白山)」이라고 설정했다. 그 산 이름 속에 「백(白)」이라는 언어는 조선어 「백(白)=밝은(バルグン)」이며, <pärkän>이라고 한다. 이 논리의 증명을 위해서 최남선은 만철(滿鐵)의 『만주역사지리(滿州歷史地理)』에 게재된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岩吉)·야나이 와타루(箭内互)를 인용하며, 「장백산」이 「불함산」<sup>30)</sup>임을 확인 강조한다. 그럼으로써 ‘동방의 옛 민족(古民族)의 신(神) 혹은 천(天)의 최고신(最高神)을 「밝(pärkän)」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었다.

동방의 古民族은 神을 부를 때 단 하나 광명의 뜻인 「붉은」이 있었을 뿐이었을 만큼, 神을 光名視하는 根據는 깊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붉은」이란 원래 일반의 神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光名界인 天上의 最高神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얼른 말하면 上帝·天主에 대한 칭호인데, 동북 계통의 文化圈내에서는 天帝의 정체는 다름 아닌 太陽이었습니다. (중략) 東北亞細亞의 文化에서는 특히 그 색채가 농후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皇室의 祖上이 天照大神이고 天皇에 日子, 그 지위에 天津日嗣의 칭호가 있고, 또한 남쪽으로 琉球에서는 君主를 日子를 의미하는 ‘데라꼬’라고 하고 뒤에는 군주를 태양과 동격으로 보고 단순히 태양을 의미하는 ‘데라꼬’라고도 일컫게 된 것도 물론 이 文化圈에 있어서의 공통한 범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sup>31)</sup>

동방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어휘인 「붉은」에서 찾고 있다. 이 「붉은」을 신을 의미하는 논리로 세우며, 태양숭배문화로 동북아시아문화를 구성한 것이다. 그 문화권에는 만주, 몽고, 일본, 류큐(琉球)가 속하는 문화권이었던 것이다. 일본과 연관시키며 동일문화권이라는 논리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방고문화의 신성관념에 대하여」는 한반도에서 부르짖는 「내성일체(內鮮一體)」속에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던 「조선 문화」의 검토의 필요성을 다시 소생시키고, 동방문화의 건국정신 창출에 필요한 신화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 5. 만주 건국대학에서 본 「만몽문화」론의 위상

「만몽문화」<sup>32)</sup>는 건국대학의 강의내용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남선은 만주와 몽고지방을 둘러싼 민족분포를 하나의 문화개념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했다. 우선 「만주(滿洲)」라는 호칭의 정의를 새로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만주국역사(滿洲國歷史)』에 나타난 만주 명칭에 관한 사기(史家)의 전문서적인 이치무라(市村瓚次郎)의 「청조국호고(淸朝國号考)」와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岩吉)의 「만주국호의 유래(滿洲國号の由來)」, 미다무라 타이스케(三田村泰助)의 「만주국 성립과정의 일고찰(滿洲國

30) 崔南善 「東方古民族의 神聖觀念에 대하여」, 상계서, p.262. 白鳥庫吉監修 『滿洲歷史地理』 第壹卷, 丸善株式會社, 1913年, p.200와 p.239. 稻葉岩吉 「滿鮮史體系의 再認識(上)」, 『靑丘學叢』 第11号, 1933年, pp.1-25.

31) 崔南善 「東方古民族의 神聖觀念에 대하여」, 상계서, pp.263-269.

32) 崔南善 「滿蒙文化」, 『崔南善全集10』, 玄岩社, 1974年, p.316. 1.序論: 滿洲와 蒙古의 地理的/歷史的 그리고 民族分布의 限界를 考察하고, 나아가서 歷史에 있어서의 「文化」의 概念을 提示한다. 2.文化移動線에 있어서의 滿蒙 原始文化를 主手로하여 그 淵源과 連絡 關係를 探究한다. 3.大陸에 있어서의 古神道 民間信仰을 比較宗敎學的으로 考察한다. 4.塞外神話에 나타난 國家理念 建國事實을 表象化한 神話的 同源關係를 闡明한다. 5.南北의 抗爭과 文化의 錯綜 北方民族과 南方文化와의 接觸樣相을 事實로써 考證한다. 6.滿蒙에 있어서의 文化類型의 進行 滿蒙을 中心으로 文化交流의 事實을 觀察한다.

成立過程の一考察)를 참조로 만주의 뜻을 풀어갔다. 최남선은 결과적으로 만주라는 명칭은 각각 그 나라에 따라 명칭의 해석이 다름<sup>33)</sup>을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가 <몽고>의 호칭을 거론한다. 이 몽고는 몽골(Monggol)과 그 복수인 “Monggols”의 사음(寫音)이지만, 몽고를 지칭하는 지역은 동일하다고 보았다.<sup>34)</sup>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북지역의 인종을 해석할 경우에 생기는 달단(韃靼)의 명칭과 그 인종해석이였다. 동양에서는 몽고를 타타르(Tatar)와 별개로 해석을 한다는 것과 서양에서는 분별없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만몽의 명칭을 역사적·지역적 구분과 함께 이 지역을 만몽문화로 호칭할 수 있음을 구분하는 것에 성공한다.<sup>35)</sup>

만주의 용어와 인종에 대한 재해석을 제시하면서 최남선은 국가의 명칭이 민족의 흥망성쇠에 관계가 크다는 것과 민족의 호칭도 인종과 혼합되어진 과정을 논하면서 만주의 인종을 해석하는 방법을 전면에서 내세우고 있다. 결국 최남선이 착목한 논리는 특히 「만주·조선학」 연구자 중에서도 야노 진이치(矢野仁一)의 「만주부족(滿州部族)의 발상지(發祥地)는 봉천성(奉天省)의 동부(東部)지방으로 보았고, 달단과 몽고는 중국과 다른 지역이며, 만주와 중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sup>36)</sup>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만주국」개념은 「만몽(滿蒙)」개념을 풀 수 있는, 즉 재구성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였다. 야노(矢野)의 「만몽은 중국의 영토에 속하지 않는다는 논(論)」과 야나이 와타루의 “달단(韃靼)이 타타르라고 호칭된 것은 중국에서만 호칭이라고 지적하는 논리에 기초한 것”<sup>37)</sup>이였다.

최남선은 야노와 야나이의 논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자신이 새로 「만몽문화」라고 칭하는 즉, 중국이 세운 「만몽」개념과는 다른 「만몽문화」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시도한다. 그것은 중국 사대주의의 탈피였으며, 그 임무가 일본과 조선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하는 숙제이고, 그런 의미에서 둘은 같은 입장이라는 논리에서 나온 실천이였다. 최남선은 만몽 구분의 근거로 ①지역성, ②정치성, ③역사성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이 세 요소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연동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역사를 구축해 온 것이 「민족의 구성원」이며, 이 역사는 지역적 특성에 의해 다시 형성되어진다는 것과, 그것은 결국 정치적 차이를 낳으며 문화가 상위(相違)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 틀을 근거로 만몽지역을 재설정한 후, 그 지역이 역사적 주축이 되는 「민족·인종」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본

33) 崔南善 「滿蒙文化」, 상계서, p.318.

34) 崔南善 「滿蒙文化」, 상계서, p.320.

35) 崔南善 「滿蒙文化」, 상계서, p.326. Stefan Tanaka(1993),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박영재·함동주 역 「일본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2004년, pp.142-143. 시라토리는 동양학의 창출을 위해, 서양인들이 그들의 인식으로 지칭하는 동양, 즉 중국에서 일본을 꺼내기 위해서 몽고의 독자성 문화를 찾아내는데 성공한다. 그는 중국과 다른 몽고를 연구함으로써 유럽과 극동의 기원이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음을 창출할 수 있었다. 우랄알타이 민족들이 사용하는 하늘을 의미하는 말을 연구하여 서구의 정신적인 배경과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 하늘의 개념을 도출하여 그와 동등함을 찾아낸 것이다. 몽고어와 터키어의 텡그리가 그것이며, 이러한 어원학으로 문화적 유사성을 도출하여 우랄알타이어족, 중국, 서구민족을 구분해 내는 것에 성공했던 논리와 흡사하다. (특히, pp.142-143참조). 전성곤 「일본<비교언어학>과 <인류학>의 변용양상고찰」 『일본문화연구』 제17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06년, pp.233-249.

36) 矢野仁一 「滿州近代史」 弘文堂書房, 1941年, pp.4-5.

37) 矢野仁一 「滿蒙藏は中國本來の領土に非る論」 『近代中國論』 弘文堂書房, 1939年[1923], pp.92-112 參照. 箭内互 「韃靼考」 『蒙古史研究』 刀江書院, 1930年, pp.525-566 參照. 崔南善 「滿蒙文化」, 전계서, pp.320-321. pp.322-326 참조.

다. 이와 같은 인종분류는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의 「몽고민족의 기원(蒙古民族の起源)」과 「동호민족고(東胡民族考)」를 참고하고 있었다. 시라토리의 인종 분류법 중에서 최남선은 통그스계 종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특히 예맥에 대해서 관심의 초점을 두었다.

통그스系 중의 種族으로서는 濊貊이라 불리고, 邦國(朝鮮)으로서는 扶餘라 불린 一派는 후에 남쪽으로 뻗어 고구려·백제 등 半島系의 諸國을 세운 것인데, 北方民族중에서 일찍부터 高度한 文化를 가졌고 民族性도 매우 洗練되어 一種의 독특한 風格을 나타내고 있다.<sup>38)</sup>

최남선은 시라토리의 학설을 그대로 인용한다. 시라토리의 논리에 찬반의 판단보다는 “그 역사성을 이루게 된 과정”에 대한 논점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또 하나 최남선은 문화 전파론에 심취한다. 이 문화 전파론은 니시무라 신지(西村眞次)가 주창했는데, 니시무라 신지가 주장하는 세 개의 고대문화 루트를 최남선은 그대로 제시하고 있었다. 즉 ①북방이동선, ②중앙이동선, ③남방 이동선이 바로 그것이었다.<sup>39)</sup> 니시무라가 주장한 문화이동설 중에서 특히 북방선은 시베리아 문화로 대표되는데, 그것은 최남선이 주장하려 한 북방문화계통의 본선과도 상통하고 있었다. 그는 이 북방선 지역의 특징은 만몽문화가 가진 고유 신앙의 형태인 샤머니즘이라고 간주하였다. 물론 이 샤머니즘은 일본의 원시신도(原始神道)와도 관련이 깊으며, 특히 이 시베리아 지역을 구시베리아(旧シベリア)와 신시베리아(新シベリア)로 분류한 후, 조선과 일본을 신시베리아로 더 상세히 분류하여 이른바 그 동원성(同源性)을 제창하고 있었다.

滿蒙地方에서 행해지는 固有信仰을 보통 샤아먼敎라고 한다. 샤아먼이란 滿州語의 「Saman」의 譯으로, 巫堂을 말하며 (중략) 오늘날 샤아먼敎가 행해지고 있는 범위는 中央아시아·蒙古·滿州·시베리아·랜프랜드·에스키모 등에 걸쳐있고 人類學上 이른바 旧시베리아 系統의 人民 사이에 행해지고 있는 샤아먼敎는 참으로 素朴·자연스런 것이나 新시베리아 系統의 滿州·蒙古쪽 되면 상당히 진보된 종교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 능히 高等倫理的 宗教 안에 집어넣어도 마땅한 이유가 있다. 가령 朝鮮·日本 등의 原始神道까지도 샤아먼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더욱이 그러하다<sup>40)</sup>

샤먼을 만몽지역의 공통 신앙형태로 보았으며 동원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최남선은 샤먼을 동북아시아의 특징으로 규정한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일본주위민족의 원시종교(日本周圍民族の原始宗教)』를 인용하고 있었다. 샤먼은 제물(供犧)·제사(祭祀)·기도(祈禱)와 같은 종교적 의식의 집행자이며 제사(祭司)의 역할, 의무(巫巫), 그리고 예언자(預言者)의 세 가지 대표적 역할을 들었다. 특히 샤먼을 조선에서는 무당이라 호칭하는데, 주술에 사용하는 방울(鈴)·거울(鏡)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지역적 분포를 증명하는 실증적인 자료로 제시하였다.<sup>41)</sup>

38) 崔南善 「滿蒙文化」, 전계서, p.330.

39) 崔南善 「滿蒙文化」, 전계서, p.342. 西村眞次 「人類の起源及び移動」 『人類學汎論』 東京堂, 1929年, pp.275-337.

40) 崔南善 「滿蒙文化」, 전계서, p.343.

41) 崔南善 「滿蒙文化」, 전계서, pp.346-347. 鳥居龍藏 『日本周圍民族の原始宗教』 岡書院, 1924年, pp.74-75, pp.87-88, pp.105-107. 鳥居龍藏 「人類學上より見たる我が上代の文化」 『鳥居龍藏全集』 第1卷, 朝日新聞社, 1975年, pp.67-77.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원시사회가 「제정일치(祭政一致)」체제를 갖춘 사회였고, 제사(祭祀)와 정치(政治)가 분리되지 않고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최남선의 의도는 제정일치 사회의 사실성 증명이 아니라, 앞에서 기술한 인종 분포의 논리를 응용한, 만몽지역의 문화가 우수한 문명 민족인 부여(扶餘)민족<sup>42)</sup>의 이동을 확인과 연결시키는 부분에 주목하였다. 제정일치사회의 제천행사의 성행과 천신(天神)신앙에 나타나는 대표가 되는 것이 부여 민족이라고 설정한다.

祭天이 그대로 拜日이며, 말하자면 太陽崇拜 위에 세워진 信仰生活이었다는 것이 차차 明白해지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主權者의 系統도 天帝인 太陽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고 이처럼 祖天一致의 관계는 그 信仰을 더욱 더 강화시켜 그에 대한 祭典은 사회결속의 求心力으로서 매우 重大性을 띠었으리라는 것도 쉽사리 알 수 있는 것이다. 扶餘의 「迎鼓」, 高句麗의 「東盟」은 이런 意義를 가진 것이며(후략)<sup>43)</sup>

제천행사가 배일(拜日)과 동일하며, 말하자면 태양숭배의 신앙생활이라고 보았다. 그와 동시에 주권자의 계통이 천제(天帝)인 태양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고, 이것이 제정일치 사회의 사상이며, 부여 인종 속에서 보였던 영고나 고구려의 동맹이 동일한 의미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관(觀)을 도출하고 있다. 그 논리는 문화가 진화에 의한 사회발달과 맥을 같이한다는 것으로 보았다. 즉 문화의 성립은 그 민족의 환경과 공간적(지형학적) 영향아래에서 성립된다는 것과 시간적 흐름이 교차되면서 창출된다고 서술하는 관점과 모순 없이 연결되고 있었다. 특히 원시 신도를 조선과 일본의 동일범주 안에서 해석하고, 진화론적 해석을 의거하여 신시베리아의 범주 안에서 일본과 조선의 동일성을 다시 비교언어학적 방법론을 통해 재확인한다.

大陸의 神道を 日本의 神道와 對照하여 생각할 때 信條나 行事, 또는 表現의 言形등에 너무나도 異常한 一致를 발견한다는 것은 크게 注意를 要하는 점이다. 이를테면 더러움을 싫어하고 청결함을 崇尚하는 것, 말 많은 것을 싫어하고 맑은 마음을 基本으로 하는 것, 日本의 神道에 있어서 太古·注連·神籬·盤境등이 그대로 大陸 各地에서 보인다는 것, 蒙古의 「오보」, 朝鮮의 「업(崇)」, 日本의 「우부스나(產生)」가 「意味」도 語形도 一致하고, 朝鮮의 「탈」과 日本의 「다다리」, 朝鮮의 「풀이」와 日本의 「하라이」등이 내용도 말도 동일하다는 것 등 헤아릴 수 없는 정도(후략)<sup>44)</sup>

최남선은 비교언어학적 해석을 예로 들면서 일본과의 동일성을 제시하는 논리는 그렇다면 건국대학의 「건국정신」과 어떻게 연동한다는 것일까. 「건국정신」에 대해 최남선은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었다.

동북세계의 諸 민족은 한결같이 神國의 인민으로서 이른바 天業의 恢弘에 이바지할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神話에 나타난 國家理念이었던 것이다. 이 정신을 감화하고 이 理想을 확장해 간다면, 일본의 건국정신인 이른바 「光宅天下」라든가 「八紘一宇」의 大理想에 到達할 수 있음은 당연한 이치

42) 白鳥庫吉 「中國の北部に據った古民族の種類に就いて」 『白鳥庫吉全集』 第4卷, 岩波書店, 1970年, p.21.

43) 崔南善 「滿蒙文化」, 전계서, p.353.

44) 崔南善 「滿蒙文化」, 전계서, p.354. 白鳥庫吉 「蒙古民族の起源」 전계서, p.30.

이며 따라서 우리 만주의 건국정신도 본연의 모습을 쉽사리 體得할 수 있을 것이다. 새 理想에 살기 위하여 옛 전통을 잡으라. 그 제일 捷徑으로서 신화로 돌아가라고. 지극히 소중한 20세기의 신화는 그 聰明과 眞摯性을 과거의 그것에서 배워 마땅하리라고 痛切히 느끼는 바이다. 45)

최남선의 이 논리를 단면적으로 해석한다면, 일본의 「건국정신」을 「광택천하」와 「팔굉일우」에 두고 이를 받아들이며 어쩌면 추앙하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주국의 새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첩경인 옛 전통을 잡아야 한다는 것과, 그를 위한 첩경이 <신화>를 잡아야 한다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지적한 건국대학 연구원의 설립목적 논리, 즉 「연구원개설의 취지(研究院開設ノ趣旨)」를 최남선은 자신의 「만몽문화」론에 중첩시키고 있었다. 사쿠다가 주장한 「국가정책과 일체화한 연구」와 연동하고 있었다. 특히 「만몽문화」론에서 만주의 「민족국가의 성립」을 위한 상징으로 다시 불러 와야 한다는 것이 신화, 즉 「건국신화」를 의식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 건국신화 발견을 위해서는 “조선반도의 문화를 해석하고 그 문화를 봄으로써” 다시 고대의 역사가 소생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곧 건국정신을 다시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화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시 맞물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조선민족>의 존재성을 설명했던 <단군신화>를 다시 불러오는 작업으로 연결되는 논리로 나타난다.

濊貊이란 것은 種族의 呼稱으로, 이를 分離시켜 단순히 濊 또는 貊이라고도 하고, 音韻關係에 의하여 發이라고도 하는데, 뒷날의 扶餘가 그것이다. 朝鮮이란 扶餘系의 一國이며 燕의 북쪽, 匈奴의 동쪽에 해당하며 朝鮮半島의 北部에 걸쳐 나라를 이룩하고 있었는데, 그 起源은 꽤 오랜 것 같다.(중략)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朝鮮이란 中國人에 의해서 攪亂되지 않았던 以前의 古朝鮮을 가리키는 것이다. 古朝鮮의 建國神話는 지금의 형편으로 보아 『三國遺事』라는 高麗朝의 文獻에 실려 있는 것을 最古의 証憑으로 하며 (후략)46)

만주국의 새로운 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동북 여러 민족이 동참하고 납득되는 「건국신화」창출에 필요한 힌트를 단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漢)나라의 무제 때 평양지방이 한 때는 지배를 받았던 부족이었지만, 그 중국의 한나라가 간섭하지 않았던 시대를 설정하고 있다. 「순수」한 부여족 계통을 이어온 고조선을 정통으로 보았으며, 그 고조선 종족 민족의 신화가 실려 있는 단군신화야말로 그 정통이라는 논리이다. 이것은 만주국 건국의 오족협화라는 통합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신화창출을 위해 필요한 커다란 제안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삼국유사』에 보이는 단군신화라는 것을 가시화하고 있었다.

다시 정리하자면, 최남선은 「만몽문화」론에서 학문 이해 방식을 분명히 일본인 학자가 가진 방법론과 이론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 부분은 「식민사관」의 무비판적 수용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일면을 가지게 되었지만, 최남선의 단군신화 제안은 밝은(parkān) 문화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의 「중심문화」로

45) 崔南善 「滿蒙文化」, 전게서, p.372.

46) 崔南善 「滿蒙文化」, 전게서, p.369.

만주 건국대학에서도 주장했다. 즉 “단군”이라는 문화아이덴티티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최남선이 민족이라고 부르는 논리, 즉 민족이라는 호칭은 그 인종(종족)의 흥망성쇠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그 시대마다 민족의 존재성에 의해 호명되어 진다는 것이다. 어느 민족이든 그 융성기 때에는 주위 민족이 그것을 의식하게 되고, 그를 받아들이는 약소민족은 입장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 영향력을 가변적으로 받게 되고, 민족의 호칭 자체도 유동적(流動的)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상황의 역사적 국면」이 어떤 역사를 현저하게 부각시키면서 기억화로 연결되어 역사화 된다는 논리이다. 최남선의 이러한 역사 인식은, 다시 현재(조선의 식민지 현실)에 오버랩 시켜 보면, 일본민족이 제국으로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있었다. 「민족」은 창출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일본 민족이 역사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약자의 입장에 놓인 조선민족의 존재성을 중시하도록 제시한 것이다. 지배자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하며, 그 학구적 논리 속에 스며들도록 노력한 것은 그 “민족”의 창출이데올로기의 전략을 의식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남선은 조선에서 선전되는 일본인과 평등이라는 내선일체 언설공간에 있기 보다는 만주 국가창출 논리인 오족협화 안에서 조선민족의 핵심인 단군 신화를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두 개의 지배이데올로기 자장 안에서 진자의 추처럼 오가고 있었던 것이다.

## 6. 결론: 〈특수〉와 〈보편〉 사이

이상과 같이 만주에서의 건국대학의 창설과정과 그 이데올로기에 연동한 조선인의 한 지식인이었던 최남선의 논고를 고찰해 보았다. 식민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텍스트가 주위의 여러 텍스트의 영향을 받으며 참조와 인용에 의해 성립된다는 것, 그 텍스트의 중층성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논리속의 다원성, 즉 조선인의 입장, 조선의 내부의 다원적 피지배 상황의 탈피노력이라는 상황의 존립(存立)을 충분히 참작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자세를 중시하였다. 이 중층성(重層性)의 견지에서 보면, 일면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최남선의 논고 발표장소인 만주건국대학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다.

먼저, 「동방고문화의 신성관념에 대하여」와 「만몽문화」에서 단군 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만주국 신화의 원형이라고 제시 하고 있다. 만주국이라는 새로운 이념 국가를 세우고, 각 민족의 공존을 위해서는 신화가 필요하였는데, 최남선은 그 신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만주와 일본, 시베리아, 중국을 포함하는 <샤먼 단군>이 그 대표라는 것을 주창한 것이다. 그러나 최남선은 일본인이 주장한 민족과 인종론 자장 안에서 그 이데올로기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고 있다는 모순을 가졌다. 양극의 사상공간 안에서 식민지적 이데올로기의 수용이라는 논리, 그리고 조선의 단군을 주창하는 민족주의적인 문화 창출 논리는, 모순의 공조(共助)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라는 현실 속에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논리에 타자(일본인학자)의 「시점」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과 「보편성」이 무엇이었는가를 더듬어보는 작업은 금후의 과제로 남는다.

주제어: 만주건국대학, 오족협화, 건국정신, 신도, 단군, 최남선, 보편

## 참 고 문 헌

- 宋漢鏞 「日本の 植民地大學教育政策比較研究-京城帝國大學과 滿洲建國大學을 中心으로」 『中國史研究』 第16輯, 2001年, pp.253-286..
- 竹山増太郎 「塾教育を中核とせる建國大學指導者教育」 『興亞教育』 1942年.
- 駒井徳三他 「(座談會)滿洲建國の教育を語る」 『日本教育』 1942年, pp.32-49.
- 伊藤肇 「はるかなる建國大學」 『諸君』 1970年2月, pp.194-203.
- 楓元夫 「世にも不思議な『滿洲建國大學』」 『諸君』 1983年, pp.140-151.
- 泉靖一 「旧植民地帝國大學考」 『中央公論』 1970年7月号, pp.146-155.
- 齊藤利彦 「『滿洲國』建國大學の創設と展開-「總力戰」下における高等教育の「革新」」,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調査研究報告-總力戰下における「滿洲國」の教育,科學・技術政策の研究』 第30号, 1990年, pp.110-132.
- 岡崎精郎 「[資料] 民族の苦悶-創設期の建國大學をめぐる-解説(1)」 追手門學院大學 『東洋文化學科年報』 第4号, 1989年11月, pp.55-73.
- 岡崎精郎 「[資料] 民族の苦悶-創設期の建國大學をめぐる-解説(2)」 追手門學院大學 『東洋文化學科年報』 第5号, 1990年11月, pp.138-156.
- 岡崎精郎 「[資料] 民族の苦悶 創設期の建國大學をめぐる-解説(3)」 追手門學院大學 『東洋文化學科年報』 第6号, 1991年11月, pp.71-87.
- 志々田文明 「建國大學における武道・課外活動」 早稻田大學人間科學部 『人間科學研究』 第5卷 第1号, 1992年, pp.105-121.
- 志々田文明 「建國大學の教育と石原莞爾」 早稻田大學人間科學部 『人間科學研究』 第6卷 第1号, 1993年, pp.109-123.
- 志々田文明 「民族協和」と建國大學の教育」 早稻田大學社會科學研究所 『社會科學討究』 第39卷 第2号, 1993年12月, pp.355-386.
- 山根幸夫 「『滿洲』建國大學の一考察」早稻田大學社會科學研究所, 『社會科學討究』 第32卷 第3号, 1987年, pp.807-839.
- 山根幸夫 「『滿洲』建國大學再考」 駿台史學會 『駿台史學』 第89号, 1993年10月, pp.35-54.
- 山根幸夫 「『滿洲』建國大學に関する書誌」 東洋文庫近代中國研究委員會 『近代中國研究彙報』 第18号, 1996年3月, pp.117-128.
- 小山貞知 「建國大學と協和會」 『滿洲評論』 第16卷 第16号, 1939年.
- 作田莊一 「發刊お辭-現代の學問について」 滿洲帝國協和會 『建國大學研究院研究期報』 第1輯, 1941年, pp. 1-14.
- 作田莊一 「滿洲建國の原理」 滿洲帝國協和會 『建國大學研究院研究期報』 第3輯, 1942年, pp.1-56.
- 作田莊一 「滿洲建國の本義」 滿洲帝國協和會 『建國大學研究院研究期報』 第4輯, 1942年(康德9年) pp.1-104.

- 富木謙治 「日本武道の美と力—性神道の体現としての武道」 満州帝國協和會 『建國大學研究院研究期報』第5輯, 1943年, pp.165—226.
- 駒込武 「滿州國」における儒教の位相—大同・王道・皇道 『思想』 No.841, 岩波書店, 1994年.
- 田中隆一 「對立と統合の「鮮滿」關係—「內鮮一體」・「五族協和」・「鮮滿一如」の諸相 『ヒストリア』 第152号, 大阪歴史學會, 1996年, pp.106—132.
- 島川雅史 「現人神と八紘一字の思想」 『史苑』第43卷 第2号, 立教大學史學會, 1984年, pp.51—94.
- 建國大學 『建國大學要覽』1940年.
- 建國大學研究院 『建國大學研究院要報』 第1号, 1939年6月.
- 中久朗 「民族協和」の理想—「滿州國」建國大學の實驗 『戦時下の日本』 行路社, 1992年, pp.81—100.
- 河田宏 『滿州建國大學物語—時代を引き受けようとした若者たち』 原書房, 2002年.
- 小林金三 『白塔—滿州國建國大學』 新人物往來社, 2002年.
- 山室信一 『キメラ—滿州國の肖像』 中公新書, 1999年[1993].
- 湯治万藏編 『建國大學年表』 1981年(昭和56年).
- 佐高信 『黄沙の樂土』 朝日新聞社, 2000年.
- 宮澤恵理子 『建國大學と民族協和』 風間書房, 1997年.
- 滿州國史編纂刊行會 『滿州國史』 總論, 1970年.
- 青江舜二郎 『石原莞爾』 中公文庫, 1992年.
- 滿州國史編纂委員會編 『滿州國史』(各論)第12篇文教.
- 淺田喬二・小林英夫編 『日本帝國主義の滿州支配』 時潮社, 1986年.
- 徳富蘇峰 『滿州建國讀本』 明治書院(日本電報通信社), 1940年.
- 作田莊一 『滿州建國の原理及び本義』 滿州富山房, 1944年.
- 橋川文三 『橋川文三著作集』 4, 筑摩書房, 2001年[1985].
- 山根幸夫 『建國大學の研究—日本帝國主義の「断面」』 汲古書院, 2003年.
- 高木廣園 「滿州協和會運動史」(2) 『政経研究』 5—3, 1968年.
- 松澤哲成 「滿州事変と「民族協和」運動」 『國際政治』 43, 1970年.
- 平野健一郎 「滿州國協和會の政治的展開」 『年報政治學』 1972年.
- 鈴木隆史 「滿州國協和會史試論」(1)(2) 『季刊現代史』 2・5, 1973年, 1974年.
- 岡部牧夫 「植民地ファシズム運動の成立と展開—滿州青年連盟と滿州協和党」 『歴史學研究』 No.406, 青木書店, 1974年, pp.1—16.
- 市村瓚次郎 『中國史研究』 春秋社, 1939年(康德11年).
- 人村欣一 『中國政治地理誌』(下卷) 丸善株式會社, 1918年[1915年].
- 箭内互 『蒙古史研究』 刀江書院, 1930年.
- 矢野仁一 『近代中國論』 弘文堂書房, 1939年[1923年].
- 矢野仁一 『滿洲國歴史』 日黒書店, 1933年.
- 滿洲事情案内所編 『蒙古事情』 1940年, p.95.

- 稻葉岩吉 「滿洲國號の由來」 『朝鮮』 227号, 1934年, pp.91-102.  
白鳥庫吉 『白鳥庫吉全集』 第4卷-第8卷, pp.69-84.  
鳥居龍藏 『鳥居龍藏全集』 第1卷-第8卷, pp.405-471.  
Müller·F·Max / 南條文雄譯 『比較宗教學』 ゆまに書店, 2003年.  
和田清 『內蒙古諸部落の起源』 日黒書店, 1917年.  
西村眞次 『人類學汎論』 東京堂書店, 1929年.

---

---

## 한글 요약

---

---

본 논고는 <만주>에 생긴 「건국대학」의 창설과정과 그에 동원되어진 이데올로기에 연동되어진 조선인의 한 지식인이 최남선의 논고를 해독해 보았다. 필자는 최남선의 논고 속에 보이는 <조선심>으로서의 “조선 문화내셔널리즘”의 창출을 위한 변용과정을 그의 텍스트에 의거하며, 당시의 사상적 이데올로기와의 연동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표현을 달리하자면 일본제국주의 타민족 지배라는 역사적 상황을 콘텍스트로 읽어내는 방법을 통해 그 다원성속에 가능성을 읽어내는 견지이다. 이런 중층적(中層的) 견지에서 보면 일면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최남선의 논고 발표 장소인 만주 건국대학에서도 나타난다. 만주 건국대학 연구원에 소속한 최남선은, 먼저 「동방고문화의 신성관념에 대하여」를 집필한다. 이는 「불함문화론」의 재편으로서, 단군신화의 의의를 제시하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만몽 문화는 더욱더 단국 신화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만주국 신화의 원형이라는 제시를 하게 된다. 만주국의 새로운 이념 국가를 세우고, 각 민족의 공존을 위해서는 신화가 필요한데, 그 신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만주와 일본, 시베리아, 중국을 포함하는 샤먼인 단군이 그 대표라는 것을 주창한다. 그러나 최남선은 총독부, 관동군, 조선, 일본인이라는 인종론 자장 안에서 그 시기의 이데올로기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는 최남선이 친일자라는 논리가 따라 다니는 커다란 이유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적 상황이라는 논리 안에서 본다면, 최남선은 일본제국주의에 동참하는 면을 가지면서도 민족을 위한 단군을 제시하려는 벡터 속이라는 모순의 진폭을 가지고 있었다. 양극의 사상공간에서 식민지적 이데올로기의 수용이라는 논리, 그리고 조선의 단군을 주창하는 민족주의적인 문화 창출 논리가 서로 모순되지만 공조시키려는 노력을 최남선은 각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

---

영문 요약

---

---

This study interpreted the thesis of Choi, Nam Seon, a scholar from the Joseon Dynasty, in relation to the foundation of [Geonguk University] in Manchuria and its ideologies. Based on his texts, I focused on relating his efforts to emerge 'Joseon Cultural Nationalism' and the ideologies of the time. The purpose was to examine how a scholar was influenced by or related to contemporary ideologies within a social system to select and exclude certain logics and to create his independent ideologies. In other words, it was reading the historical context of Korea's domination by Japanese Imperialism and possible scenarios within the plurality. Even in such arbitrate position, Geonguk University of Manchuria, at which Choi, Nam Seon presented his thesis, showed that the ideologies cannot be interpreted from a single perspective. Choi, Nam Seon published [Sacred Ideas of Ancient Eastern Culture] as a member of Geonguk University's Research Institute. It was an edited version of 'The Theory of Bulham Culture (Manchria, Korea, and Japan)', and started from the significance of the Myth of Dangun. The culture of Manchuria-Mongolia particular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Myth of Dangun and presented the origin of the Myth of Manchuria. They needed a new myth to establish the foundation ideology of Manchuria and collaboration of its people and chose Dangun, the shaman of Manchuria, Japan, Siberia, and China, to play a major role in the myth. However, Choi, Nam Seon actively reacted to the ideologies of his time in relation to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Joseon, the Japanese Troops, the Joseon Dynasty, and Japan. This is one of the major reasons why Choi, Nam Seon is still known as a pro-Japan. Considering the logic of colonialism, Choi, Nam Seon corresponded to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stood for the Myth of Dangun for Joseon. In the contradiction of two opposing ideologies - acceptance of colonial ideology and the emergence of nationalistic culture based on Dangun - Choi, Nam Seon made efforts to combine the two. As he absorbed the logic of modern Japanese scholars based on his identity in the Japanese Colonialism, we might be able to connect this study to examining his idea of modernity in the future.